# 제15강 호메로스의 『일리아드』Ⅳ-트로이아 전쟁의 최후

(1교시)

## ◆ 트로이아 전쟁의 결말

▲ 프리아모스 왕의 간청
24권 ( 468~595 행)
→ 사나운 아레스가 무릎을 풀었다는 식의 시적표현..
→ 카타르시스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거액의 몸값을 마차에 싣고,
마부 한 명만 데리고 아킬레우스 막사에 찾아간다.
제우스의 후손이기에 헤르메스가 수호한다.

**일리아스는 생산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
**→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인간의 참혹성, 실존이 파괴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산적인 묘사를 넣지 않았을 것이다.**

▶ 아킬레우스를 찾아간 프리아모스왕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줄 뿐 아니라,
프리아모스 왕을 호위하여 트로이아에 돌려보냄.
열흘간 휴전.

**■ Priamos 왕이 눈물을 보이면서 Achilleus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 줌.**
**■ 이것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던 모습에서 극적으로 인간성이 회복되는 반전을 보여 줌**

www.artnstudy.com

24권의 일리아스는, 전쟁 9년 어느 날의 전염병부터 헥타르의 장례식으로 끝난다.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음

아마존 여전사들의 도움에도 트로이아군의 열세는 면하지 못한다.

Johann Heinrich Wilhelm Tischbein, 1751-1829: Ansreitende Amazonen. Photo © Maicar Förlag - GML

Amazon in battle. Greek relief 4C BC. Photo © Maicar Förlag - GML

Johann H. W. Tischbein 1751-1829: Tod der Penthesilea. Photo © Maicar Förlag - GML

▶ 아마존 여전사 펜테실레이아를 안고 있는 아킬레우스

(2교시)

www.artnstudy.com

▲ 아킬레우스의 죽음

프리아모스왕의 딸, 폴뤽세나에 반한 아킬레우스는,
폴뤽세나와 혼인 시켜주면,
폴뤽세나와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던지,
트로이아 진영에서 싸우겠다는 전령을 프리아모스에게 보낸다.
프리아모스는 혼담을 나누기 위해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자고 답신을 보냄.
이를 엿들은 파리스가 먼저 아폴론 신전에 숨어들어,
아폴론의 은궁으로 아킬레우스의 뒷꿈치를 쏘아 죽임.

▲ 트로이아 성의 함락

트로이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아성은 함락되지 않는다.
칼카스에 의해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신들의 마지막 신탁이 내린다.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있어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Jean Germain Drouais 1763-1788: Philoctète dans l'île de Lemnos.
Photo © Maicar Förlag - GML

▶ 필록테테스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갖고 있는 필록테테스를 데려오는 사이,
디오데메스와 오뒤세우스는 트로이아 성에 숨어들어가
팔라디온을 훔쳐 나온다.

▶ 팔라디온 (전신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아테나상)

www.artnstudy.com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탁을 피하는 것이 아닌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신에게 위탁.
기도는 기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절대자와 합일할 수 있는 수단.

▲ 트로이 목마

팔라디온이 사라지고, 대신 트로이아 성문 앞에 놓여진 거대한 목마를 보고,
그리스 연합군의 음모기 때문에 성 안에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성에 들여 팔라디온 대신 여신의 노여움을 푸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포세이돈 신전 신관인 라오쿤이 목마를 들여오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바다 괴물에 의해 라오쿤 3부자가 목졸려 죽는다.
이를 신의 뜻으로 안 트로이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목마를 성안에 들여온다.
술, 노래, 춤에 취해 있던 트로이아인들은 목마 안에 있던 그리스 연합군과
무너진 성을 넘어 들어온 병사들에 의해 몰살.

▶ 트로이 목마 모형

www.artnstudy.com

▲ 로마인의 시조가 되는 아이네이아스

트로이아가 무너지기 전에, Aeneias는 아버지 Anchises를 업고 트로이아를 떠나, Latium 지역에 머물게 된다.
Anchises 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사랑을 나눈 것을 떠들고 다니다
제우스의 불벼락을 맞고 절름발이가 되었음.

www.artnstudy.com

▶ 아이네이아스의 이동

**▲ 아가멤논과 카산드라의 죽음**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은 아가멤논은
부인 클뤼타임네스트라와 그의 정부이자 자신의 사촌동생인 아이기스토스에게 죽임을 당함.

www.artnstudy.com